

억압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 사이*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기계와 인간의 관계

배 상 미**

요약

이 논문은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소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북명이 공장을 재현한 식민지시기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계소리는 항상 경쾌하고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 그러나 이북명 소설의 노동자들은 기계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질병을 얻는 등 기계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자 지식인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기계소리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이상을 달성할 희망을 본다. 이러한 식민지시기 소설들의 특성은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은 시각적 이미지로 기계를 재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계가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북명의 식민지시기 소설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당시 낮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식민지 조선의 환경에서도 기계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재현해내었다.

주제어: 이북명, 기계, 노동자, 지식인, 사회주의, 공장, 과학, 기술, 식민주의

* 이 연구는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AKS-2016-OLU-2250003).

** 튀빙겐대학교 방문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자들에게 들리는 기계소리: 노동 착취와 기계 문명의 성취
3. 지식인들에게 들리는 기계소리: 새로운 사회발전을 암시하는 신호
4. 청각에서 시각으로: 기계를 통제하는 힘을 가진 노동자
5. 결론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이북명의 식민지시기 소설을 중심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북명이 식민지시기에 공장지대를 그린 소설들의 배경은 주로 그의 일터였던 함흥지방의 비료공장이다. 이 소설들 중 대다수가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혹은 이 공장에서 취직하기 위해 이 도시를 방문한 룬펜프롤레타리아들을 주동인물로 삼았다. 이 인물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기계에 대해 몸으로 반응하거나 심리적으로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한편으로 기계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큰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계와 인간과의 유사성을 인지하거나 기계에 매혹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홍남공업지대**¹⁾를 배경으로 하는 이북명의 1930년대 소설이 노동자들 및 구직자들과 기계의 관계를 양가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기계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이 시기의 이북명 소설의 특성은 그가 북한에서 창작한 소설들도 참고한다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이 기계와 인간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 결과

1)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85-211면.

가 문학에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는 근대 생산시스템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로, 전자는 가변자본이고 후자는 불변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근대적 ‘생산관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초점은 생산과정에 필요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관계보다 잉여가치 생산으로 인해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관계’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공장제 생산 양식 하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마치 기계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왜곡된 적대관계를 조장하였다고 분석하였다.²⁾ 마르크스의 목적은 노동자들과 자본 사이의 적대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자본이 기계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야기한 주요한 적이라고 호도하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생산체제로 인해 느끼는 불만을 기계의 탓이라고 선동한 것, 그리고 거대한 기계의 존재는 노동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해 가졌던 감정은 단순히 그들의 일자리 상실과 노동 착취로 인한 분노뿐이었을까? 당시로서는 새로운 존재인 기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정은 다양하지 않았을까? 기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편한, 친밀한, 혹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인문학적으로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많은 프롤레타리아 문학들이 창작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과 기계의 관계에 주목하는 소설은 많지 않았다. 대신,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노동자들과 관리자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이윤 증식만을 목적으로

2)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1권(하), 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2, 584, 592-593면.

삼는 자본가들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는지 강조하는 소설들이 많았다. 즉, 기계는 하급 노동자와 관리자, 혹은 하급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균등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매개로 등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³⁾ 이북명의 소설에 등장하는 기계도 이 소설들처럼 노동자들과 관리자의 권력관계를 재현하는 하나의 매개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기계 재현과는 조금 다르게, 이북명의 소설은 노동자들이 기계 자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 공장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위치,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의들이 부상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증가하는 경향은 식민지시기 문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2010년대 이후 식민지시기 프롤레타리아 문학 혹은 문학가들이 논한 과학기술, 혹은 기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당시 지식인들이 과학기술과 로봇 혹은 인조인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집중한다. 그러다보니 이 연구들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학에 기계, 혹은 기계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차승기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최근의 한국문

3) 공장 안의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소설 안에서 구체적으로 고발한 대표적인 장편소설로는 강경애의 『인간문제』, 한설야의 『황혼』 등이 있다.

4) 그 중에서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몇몇 프롤레타리아 문인들이 논한 카렐 차페크의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에 관한 연구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언급할 수 있다. 김효순, 『카렐 차페크의 R.U.R. 번역과 여성성 표상 연구-박영희의 『인조노동자(人造勞動者)』에 나타난 젠더와 계급의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8, 2018, 95-111면; 황정현, 『1920년대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의 수용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1, 2015, 513-539면; 송명진, 『近代 科學小説의 科學 概念 研究: 朴奘熙의 『人造勞動者』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2(2), 2014, 185-207면;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 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2012, 417-449면;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양상 연구: (80만년 후의 사회)와 (인조노동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17-146면.

학 연구 경향과는 달리, 이북명의 소설들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기계와 인간, 과학기술과 인간, 그리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공해와 인간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여 기계 및 과학기술과 이북명 소설의 관계를 분석해왔다.

차승기는 여러 편의 논문에서 이북명의 1930년대 전반기 소설에 재현된 공장과 기계를 노동자들을 착취 및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대상으로 제시한다. 우선, 『기계, 노동, 신체』에서는 이북명의 식민지시기 소설과 해방 이후의 소설을 대조하여, 전자에서는 노동자들의 신체가 기계에 의해 훼손되지만, 후자에서는 기계와 협동하는 모습에 주목한다.⁵⁾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에서는 이북명의 소설이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 부상과 사망의 위협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통해 흥남 공단을 건설한 주요 자본인 노구치 콘체른이 노동자들을 제국의 본원적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던 상황을 재현하였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북명이 해방 이후 같은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생산 활동과 반자본주의적 실천으로 그려낸 것을 두고 차승기는 그의 소설이 내재한 삶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본다.⁶⁾ 『자본, 기술, 생명: 흥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는 니혼질소라는 제국 자본이 철저하게 공장의 질서만을 중심으로 흥남을 통제하는 구조 안에서 노동자들의 신체와 건강을 어떻게 하찮게 취급했는지 이북명의 소설을 중심으로 밝힌다. 또한 이 연구 해방 이후에 발표된 그의 소설에서 이 공간이 더 이상 민족차별과 노동억압을 재생산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곳으로 의미가 변하는 과정에서도 주목한다.⁷⁾

5) 차승기, 『기계, 노동, 신체: 노동소설의 해방전/후와 신체성의 전환』, 『사이間SAI』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17-153면.

6)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한국문학연구소, 2015, 326-356면.

차승기의 연구는 항상 해방 이전과 이후의 이복명의 소설을 비교 및 대조하면서, 소설 속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의 작품에 나타난 노동자들이 공장과 맺는 관계의 변화를 포착한다. 또한, 이복명이 당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노동자의 재현에 미친 영향을 동시에 포착하고자 한다. 차승기는 이복명의 1930년대 초기 소설에서는 극명하게 노동자와 기계가 대립하고, 해방 이후 소설에서는 노동자와 기계가 조화하는 측면에 주목한다. 물론, 차승기의 연구는 이복명의 식민지시기의 소설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지만,⁸⁾ 동시에 이들의 저항이 '파업'이라는 노동을 중지하는 순간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계와 인간의 적대적 관계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차승기의 분석대로 이복명 소설의 기계가 인간을 미래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길러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계 자체가 노동자들과 적대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노동자들의 행동이 기계가 정지된 순간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들은 기계 안에서 혹은 기계와 함께 노동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점차 공장의 중간관리자가 대표하는 자본에 흐름에 맞선 저항이 필요하다는 자각으로 나아간다. 물론, 차승기의 연구대로 이복명의 소설 속 노동자들은 기계와 함께 일하면서 부상을 입고, 기계의 리듬에 일방적으로 맞추고, 자신들의 생활 리듬을 착취당한다. 그러나 지식인이 주인공인 식민지시기 소설과 해방 이후의 소설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의 작품을 읽는다면,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노동 착취는 기계 그 자체가 가진 속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계를 이용해서 이윤을 내려는 자본가들의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오

7)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홍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417-448면.

8) 차승기, 『기계, 노동, 신체: 노동소설의 해방전/후와 신체성의 전환』, 『사이間SAI』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35-137면.

히려 노동자들, 특히 지식인 출신으로서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근대의 모순과 맞서보려는 결심을 한 이들은 기계의 소리에 압도당하면서도 매혹된다. “현대 기계문명의 위대한 행진곡”이나 “현대의 서곡”과 같이 이 시기 이복명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기계소리를 명명하는 표현들은 기계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계소리는 서구와 비서구 지역을 막론하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사이에는 근대적 생산양식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근대화된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신명호 등은 ‘소음’이 근대 초기 조선의 문명화 정도를 평가할 중요한 지표였음을 보여준다. 개항 후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당시 한반도에 머물면서 자연과 인간 소리 외에 기계나 근대적 교통수단 같은 인공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근대화론자들에게 ‘소음’의 정도는 ‘문명화’ 정도를 판별하는 척도였다. 미국을 방문한 윤치호는 그 곳에서 자동차와 기차의 ‘소음’을 기계문명의 편리함을 상징하는 소리로 인식하였으며, 이광수도 그의 대표작 『무정』에서 자동차 등 서울 도심의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문명의 소리’로 기술하였다.⁹⁾

그러나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심화되어 갈수록 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는 것도 지적한다. 1930년대에 이르면 자동차 소음 공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정되었다.¹⁰⁾ 기계소리는 식민지 조선에서만 아니라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유럽에서도 19세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다. 머레이 웨이퍼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소음은 도시 주민

9)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신명호·손정현·채영희, 『자동차 경음 기술이 식민지 조선의 도시소음에 미친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7(3),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13, 112-113면.

10) 신명호·손정현·채영희, 앞의 글, 112-121면.

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공해이자,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의 상징으로 변해갔다. 소음공해는 노동자들의 난청을 야기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¹⁾ 소음 공해는 공업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도시화와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자동차는 도시의 소음 공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처럼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소음은 문명화의 척도이자 사람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공해라는 양가적인 것이었다.

노동자와 기계,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양가성에 주목한 시각은 식민지 조선의 문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학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민수 강은 그의 저서 『살아있는 기계들의 숭고한 꿈: 유럽적 상상력 안에서의 자동기계 (*Sublime Dreams of Living Machines: The Automaton in the European Imagination*)』에서 중세부터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의 유럽에서 출판된 다양한 재현물들을 검토하여, 생명체의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들에 관한 발상들이 유럽의 역사에 걸쳐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기계와 자동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했지만 기계에 대한 양가적인 시각은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낯선 타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이 타자가 가져다 줄 낭만적이고 편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 타자에 의해 ‘인간’이 대체될 수도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을 동시에 자극하였다.¹²⁾ 특히 이러한 상상력은 문학에서 두드러졌기에, 그의 연구도 문학을 중심으로 기계와 자동화의 상상력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강이 분석한 자동화와 기계에 대한 양가

11) Murray Schafer,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1993, pp.73-76.

12) Minsoo Kang, *Sublime Dreams of Living Machines: The Automaton in the European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14-54.

적인 감정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휴머니즘의 기치 아래 인간의 존엄과 자연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지켜주던 영역마저 기계에 의해 대체될지도 모르며 이것이 인간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강(Kang)의 연구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해볼 때, 기계를 재현하는 양가적인 시각은 식민지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망라하여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북명의 소설이 보여주는 기계에 대한 양가적인 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이북명을 제외하고 식민지 조선의 문학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의 문학들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기계문명의 발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기계를 매개로 한 인간들의 관계에만 특히 주목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이북명의 소설에서 기계가 어떻게 재현되었고, 이것이 그의 작품세계의 특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겠다.

2. 노동자들에게 들리는 기계소리: 노동 착취와 기계 문명의 성취

이북명의 초기 소설에서 노동자들은 ‘소리’와 ‘냄새’로 공장을 느낀다. 특히 그의 초기작에서 ‘소리’는 소설의 배경이 공장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매개이다. 이 소리는 공장의 현장성과 노동자들을 압도하는 기계의 거대함과 강력한 힘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낸다.

빨강계 단 ‘리베트’를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 ‘파이프’를 쿵쿵 집어던지

는 소리, 치기영 치기영 하는 목도소리, 몇 톤씩 되는 기계를 운반하는 영치기 소리, 감독의 쏘아버리는 소리, 욱하는 소리, 노랫소리 …… 소리 소리가 막 범벅을 개여 직장 안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수라장이 다.¹³⁾

시운전 날이 가까워졌다.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 목도질하는 소리, 도루코소리, 유산 가마에서 장작이 튀는 소리, 초석(礎石)을 쏟아내리는 소리, 분쇄기에서 초석을 깨는 소리 …… 직장은 버적거린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 모양으로.¹⁴⁾

도록코가 레일 굴러가는 소리, 사무리(세멘죽)를 담아 올리는 엘리베이터의 오르는 소리, 리벳트 두드리는 소리, 원료를 만재하고 들어오는 기선의 기적소리.¹⁵⁾

응호는 거미줄같이 엉키인 파이프, 세차게 도는 모터, 요란한 컴퍼렛 슈어 …… (壓縮機), 가스 탱크 …… 이런 것이 모두 한없이 미웁고 자기 들과는 하등 상관없이 없는 적(敵) 같이 보이었다.¹⁶⁾

이상의 인용문들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는 기계의 힘만이 아니라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주거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소리들은 다른 어떤 상징들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흥남 공업지대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북명의 초기작들에서 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기계들은 노동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이들에게 피해

13) 이북명, 『암모니아 탱크』, 안승현 엮음,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378면.

14) 이북명, 『기초공사장』, 위의 책, 382면.

15) 이북명, 『인테리』, 위의 책, 417면.

16) 이북명, 『출근정지』, 위의 책, 429면.

를 입히는 대상처럼 보인다. 노동자들은 기계를 이용한 공정 외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고, 혹은 반복적으로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는다. 그 중에서 『출근금지』(1932)는 다른 어떤 소설들보다도 기계와 노동자들을 적대적으로 재현한다. 항상 폭발 위험을 내포하는 변성 탱크를 “마(魔)”로, 공장 부지를 가득 메운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계들을 “적(敵)”으로 인식하는 노동자들을 그리는 이 소설은 노동자들이 공정 외중에 부상, 사망, 그리고 원인 모를 질환을 얻게 되는 원인을 기계에서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계는 노동자와 관리자, 그리고 자본가 등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의 위계를 고려하지 않는 중립적인 대상으로도 나타난다. 그의 또 다른 초기작 『암모니아 탱크』에서 신참 노동자들은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무섭고 위험한 것뿐이다. 직공들은 전쟁할 때의 하졸과 같이 공포 속에서 노동을 한다.”¹⁷⁾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은 이백 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매일 이삼 명의 부상자가 동부의 등에 업혀서 부속병원의 신세를 지는 결과를 낳는다.”¹⁸⁾ 부속 병원의 존재는 이 공장의 소유자와 운영자들도 공장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므로 산재가 발생할 높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공장의 열악한 환경과 기계의 파괴력은 노동자들의 안전만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 공장에서 두 명의 직공이 각각 다른 탱크 안의 탄산가스에 질식되던 날, 분노한 노동자들은 부상자들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감독을 붙잡아 탱크 안에 넣어버리려고 한다. 이처럼 위협적인 기계의 위력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북명의 소설 안에서 기계의 위력과 지속성은 기계와 함께 일하면서 병들고 부상당하는 노동자들과 대조되면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이북명, 『암모니아 탱크』,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378면.

18) 위의 책.

부상과 질병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를 ‘노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실직의 위협에 처하게 한다. 이 북명의 소설들에 나타난 공장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므로, 노동자들이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단결할 이유는 많지만, 노동자들이 무엇보다 특히 분노하는 것은 공장의 해고 정책이다. 『암모니아 탱크』(1932)를 제외하고, 『기초 공사장』(1932), 『인테리』(1932), 『출근정지』(1932)에서도¹⁹⁾ 공장은 생산에 부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노동자들을 매우 쉽게 해고한다.

1930년대 당시 이 소설들의 배경인 홍남의 조선질소비료공장은 다른 공장들보다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²⁰⁾ 이 공장의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이 노동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노동자들을 대신할 구직자들은 홍남 지역에 상존했으므로 공장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²¹⁾ 이 공장은 많은 산업예비군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공장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관망하던 총독부의 관리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식민지시기 내내 폭압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지하였다. 이 공장의 빈번한 해고와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제일 큰 공단을 대표하는 공장이라는 상징적인 지위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적 목적의식을

19) 1935년에 이북명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표한 『초진』에서도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공장의 정책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20) 박건홍, 『1930년대 초반 조선질소비료공장 노동자조직운동』, 『역사연구』 35(4), 역사학연구소, 1995, 40-42면; 『해고된 십이명까지 체련직공 전부 복직 소장 귀임 시까지 요구철회, 홍남 체련회사 파업사건』, 『동아일보』, 1934.10.04.

21) 조선질소비료공장의 임금 및 직종의 민족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매우 심각했다. 노동자들은 항상 부상의 위협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공장 측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항상 상존하는 산업예비군들을 염두에 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공장이 내포한 이러한 모순들은 많은 노동운동가들을 이 공장으로 이끌었는데, 이들의 활동이 비료공장의 차별과 노동환경을 궁극적으로 바꿔내지는 못했다.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홍남 건설과 지역사회』,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20, 275-335면.

가진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흥남 지역으로 흡수하는 동인이 되었다.²²⁾ 이 북명의 소설은 공장 측이 강압적인 노동 관리에 저항하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동원하는 주요 기제로 ‘산업합리화’와 ‘신체검사’를 꼽는다. 이 두 가지 공장의 주요 관리정책은 그의 대표작 『초진』(1935)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북명이 1932년에 발표한 『질소비료공장』은 그가 일본어로 발표한 『초진』의 모태가 되는 소설이지만, 두 소설이 공유하는 짧은 부분만 살펴 보아도 창작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전자가 공장이 노동자들의 친목회를 주도한 문길을 감시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문길의 시각을 중심으로 공장의 기계들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태의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초진』이 공장 측과 갈등하는 핵심은 친목회 결성보다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예비하는 산업합리화와 신체검사이다.

산업합리화란 1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생산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담론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22) 1930년대 흥남지역에서의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김윤정, 『1930년대 초 범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127-166면; 곽건홍, 앞의 글.

23) 이후 이북명이 월북한 후에 『초진』을 수정하여 그의 첫 번째 단편집에 실은 『질소비료공장』도 역시 1932년 판본과도, 『초진』과도 작품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 이북명은 그의 회고에서 1932년에 『조선일보』에 처음 발표했던 『질소비료공장』의 검열 이전 판본을 잃어버려 일본에서 발표한 『초진』을 토대로 번역하여 북한에서 『질소비료공장』을 다시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장은 나의 작가 수업의 대학이었다』, 남원진 편, 『이북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452-453면) 그러나 이미 김주현도 지적했듯이(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 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239-242면), 북한 판본은 단순한 『초진』의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째, 1932년 판본과 1935년 일본에서 발표한 판본 역시 구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둘째, 1935년 판본의 서술 특징이 그의 동시기 소설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김주현의 주장대로(위의 글, 235-256면) 1932년 판본이 검열되기 이전의 전문을 1935년 판본을 참고하여 재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조선에서도 점차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지식인들은 식민지 조선도 어서 산업을 고도화하여 세계적인 생산력 향상 추세에 발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지식인들은 공황 이후 '산업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임금 인하와 해고선풍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결국 노동자 탄압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²⁴⁾ 『초진』 역시 이러한 산업합리화의 역풍을 다루고 있다.

산업 합리화로 해고다. 유안 직장의 예로, 현재 유안직장의 엔드레스에는 한 대에 8명이 일하고 있네. 두 대에 16명이다. 그것을 이번에 콤베어라고 하는 최신식 기계로 바꾼다고 한다. 이 콤베어 한 대에는 2명만 있으면 된다. 2대에 4명, 16명 중 4명이 콤베어를 운전하면 남는 12명은 당연히 쓸모 없어진다. 이 12명은 실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소위 산업합리화에 의한 해고라고 하는 것이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진』의 노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기계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할 빌미를 자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이해한다. 특히 『초진』에서 공장이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신체검사는 노동자들의 병 들고 연약한 육체를 객관적이고 의료적인 언어로 제시하여 강인한 기계와 연약한 노동자 신체의 대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²⁶⁾

24) 이수일, 『1920-30년대 산업합리화 운동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식』, 『역사와 실학』 38, 역사실학회, 2009, 155-184면.

25) 이복명, 『암모니아 탱크』,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사, 1995, 177면. 이 판본은 1932년 이복명이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것이 아닌, 1935년에 일본에서 간행되는 일본어 잡지 『문학평론』에 일본어로 발표한 것이다.

26) 한설야의 장편소설 『황혼』의 배경이 되는 방직공장 역시 산업합리화 정책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정책을 세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합리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흥미롭게도, 이복명의 소설과 다르게 이 소설의 노동자들은 신체검사 결과를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이 유사한 질병을 앓게 되었으니,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업가의 이윤과 생산성 향상만이 주목받던 산업 근대화 초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 안정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도 보장되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공장법(1929)의 제정과 노동자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법(1927)과 노동자재해부조법(1932)의 실시로 이어졌다.²⁷⁾ 그러나 이북명의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의 대공장에서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노동자들의 연약한 육체의 실체를 과학적 언어로 폭로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강검진의 ‘객관적인’ 언어를 빌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이상으로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를 보면, 둘 사이에는 화해하기 어려운 적대 기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기계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능력과 공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격하시키기만 할 뿐,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북명의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기계 소리를 “위대한 기계문명의 행진곡”으로 묘사하는 문구를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이 문구는 조금씩 변용된 형태로 그의 초기 소설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²⁸⁾ 이북명 소설의 서사를 고려해보면, 이것은 공장의

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이 결과를 공유하여, 노동자들이 이 공장의 열악한 환경이 그들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임을 일깨워 모두 함께 사측에 맞서 단결하는 계기로 만든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북명과 현실아가 ‘산업합리화’와 ‘신체검사’라는 유사한 소재를 다룬다는 점은 두 작가가 사재관계이고, 두 소설이 발표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연으로 지나치기는 어렵다. 이 두 소설이 유사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르게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7) 김경일,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동양학』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 299-300면.

28) 이 문구들은 이북명의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변용된 문구들로 등장한다. “위대한 기계문명의

소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설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구의 의미를 선불리 단정하기에는 그의 또 다른 소설들, 즉 지식인들이 주인공인 그의 또 다른 소설들을 무시할 수 없다.

3. 지식인들에게 들리는 기계소리: 새로운 사회발전을 암시하는 신호

이북명은 작가로 데뷔한 초기에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리다가, 점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의식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합류하기 위해 함흥지역을 찾은 지식인들을 소설 안에 그리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기계의 소리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희망의 소리이자 자신들의 존재를 지식인에서 노동자로 전이시켜 사회의 모순에 맞설 자격을 갖춘 인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들도 노동자가 주인공인 소설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재현된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히 들린다. 캄캄한 직장 안에서 곰팡이 의복 얼굴이 검은 직공들이 드문드문 얼굴을 내밀고 큰길 쪽을 내다본다. 아마 음향과 연기는 일본해의 물이 마르면 말랐지 이 흥남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래를 잔뜩 실은 밀구루마 일대가 내가 걷고 있는 바로 아래 레-루를 달리고 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팔짱을 풀었다. 밀구루마꾼들은 모두 옷

행진곡”(이북명, 『암모니아 탱크』,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사, 1995, 378면); “위대한 현대 기계문명의 행진곡”(이북명, 『인테리』,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417면); “기계문명의 위대한 행진곡”(이북명, 『출근정지』, 위의 책, 432면)

통을 벗어버리고 구루마를 민다. 나는 춥다고 팔짱을 끼는데 밀구루마꾼들의 고동색의 등에서는 땀이 철철 흐른다. 그 땀이 태양광선을 받아 어느 각도에 가면 번쩍거렸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늘고 피가 순환하는 것 같지 않은 내 손이다. 나는 사진기계가 있었으면 그 위대한 광경을 사진에 찍어둘 생각이 났다. 한적한 S읍에서 변화없이 권태의 생활을 계속하던 나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은 커다란 경의적이었다. 어느 젊은이가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하지 않으랴!²⁹⁾

위 인용문은 『공장가』(1935)의 주동인물인 ‘내가 흥남의 조선질소비료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공장지대에 처음 도착해서 공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느낀 소회이다. 그는 공장의 소음과 매연을 보고 그 규모를 “일본해의 물”과 비교하며 감탄한다. 그러나 이 공해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노동 조건이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에 땀을 흘릴 만큼 격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자신의 깨끗한 손과 비교하면서 “위대한 광경”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앞서 이복명이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창작한 소설에서 나타난 기계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상기해보면, 같은 작가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같은 공간의 같은 상황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이 소설은 독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공장지대에 온 목적을 생각해보면, 공장의 기계들의 움직임과 이 질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공장가』를 비롯하여 『현대의 서곡』(1936), 『어둠에서 주운 〈스케치〉』(1936)에서 주인공³⁰⁾인 남성 지식인들은 중등교육의 수혜를 받았고 사회

29) 이복명, 『공장가』,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서, 1995, 145-146면.

30) 『인테리』 역시 남성 지식인이 주동인물로 등장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른 소설들과 달리 지식이인이 공장지대에서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점차 혁명과 노동에 관심을 잃고 보수화되어간다. 그리고 그의 애인의 시선은 그의 보수화 과정을 노동운동에 헌신하는 그의 애인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능력이 있으며, 공장 행으로 인해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 갈등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지식인들은 대공장이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이며, 이곳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스스로 감득하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로 거듭난다는 마르크주의의 전형적인 역사주의 이론에 공감하여 스스로 혁명 주체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혁명으로 다가가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기계는 지식인들에게 대공장을 운영하는 핵심으로, 자본주의 근대의 기술발전을 대표하는 대상이다. 지식인들은 기계소리에 압도당하고, 노동자들과 달리 기계에서 억압을 느끼기보다 새로운 활력과 경험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필수는 그 공장을 내다보면서 꿀꺽하고 침을 넘겼다.

그 고개에서 한 오 분 버스가 달리더니 H정류소에 다달았다. 필수는 우선 경성과 그 정경이 다른 데 놀랐다. 모두가 공장복 입은 사람 뿐이었다. 다니는 사람들도 다 남공 여공 같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전개된 커다란 콘크리트 건물들 …… X공장 그 곁으로 X방직공장 X제사공장 …… 들이 몽롱한 검은 연기를 토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기계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³¹⁾

『현대의 서곡』에서 공장 취직을 결심한 필수는 공장지대에 처음 도착해서 공장의 풍경에 감탄한다. 특히 그는 공장의 공해를 “위대한 기계문명”의 증거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광경에 흥분한다. 이는 공장의 공해에

시선에 의해 비판된다. 지식인이 주인공인 이북명의 소설들이 주로 1935년과 1936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소설은 조금 이른 시기인 1932년에 발표되었다. 소재의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도 지식인이 주인공인 소설의 일환이다. 그러나 다른 지식인 소설과 출간 시기가 다르고, 이 지식인이 자신의 목적지인 함흥 공업지대의 일부인 내호에 도착한 이후에도 공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혁명적인 지식인이라고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의 소설들과 동일선상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31) 이북명, 『현대의 서곡』,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진검』 3, 보고서, 1995, 295면.

대해 노동자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2장에서 분석한대로, 노동자들은 공장의 공해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어내는 공해를 두려워하고 꺼릴 뿐, 이 공해가 문명 발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같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의 기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소설 안에서 지식인들이 노동하는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 『현대의 서곡』은 이북명 소설의 지식인들이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서곡’은 어떤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주되는 음악이다. 이 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청각적 이미지는 기계소리밖에 없고, 필수가 거주하는 공장지대를 상징하는 소리는 기계소리이기 때문에,³²⁾ 소설의 제목인 ‘현대의 서곡’은 공장의 기계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기계소리가 음악의 본격적인 부분이 아닌 ‘서곡’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성장에 따른 기술 발전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탄생은 이후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가져다줄 기반이기는 하지만, 기술 발전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은 바로 기술발전이 가져다줄 미래의 전망을 기계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기술발전으로 인한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인의 기대가 포함된 제목이다.

이북명의 소설들은 지식인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공장지대로 이주하게 된 경위와, 구직과 취직의 과정만을 그릴 뿐, 이들이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식인에서 노동자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기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노동자들과 어

32) “검은 굴뚝에서 뿜는 연기와 기계소리가 요란히 들려오는 공장이 보였다”는 이북명이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문구이다. 그리고 필수는 “그 공장을 내다보면서 푹떡하고 침을 넘겼다.”(이북명, 위의 글) 이처럼 공장지대는 지식인들을 흥분시키고 기대감에 차오르도록 자극하는 대상이다.

떻게 다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기계를 바라보는 동경의 시각은 실제 노동해본 이력이 없고, 노동과정 중에 기계에 의해 착취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 그 중에서도 노동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노동자가 공장을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 그 초점은 기계보다 앞으로 자본에 맞선 투쟁을 함께 조직할 동료 노동자에게 있다.

명숙은 N화학공장 직공들을 볼 때마다 서울 있을 때 Z방적회사 연사 직공(撚絲織工)의 여공으로 있던 자기를 생각하여 본다. 실을 이개고 모터에 기름을 주고 동무들과 공장 문을 드나들던 그 때가 그림기도 하였다.

“나도 기회를 보아 N공장에 들어가야지.”³³⁾

명숙은 서울에서 일할 당시 N공장 파업 주동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서 구류를 당하고, 공장에서는 해고당한 후, 함흥의 공장지대인 내호로 이주한 여성 노동자이다. 여성 직공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오지 않아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는 매일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에게 이런 생각을 촉발시키는 대상은 기계가 아니라 그녀와 같은 노동자들이다. 앞서 인용한 『현대의 서곡』의 필수 역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에게 이 노동자들은 공장지대를 상징하는 풍경의 일부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숙에게 공장의 노동자들은 풍경이 아닌 그녀와 함께 노동할 동료들이다. 이북명의 소설은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고 혁명적 지향성을 가진 인물이라도 그 인물의 자질에 따라 공장에서 주목하는 대상을 다르게 재현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 안에서 기계를 바라보는 노동자와 지식인의 시각 차이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혁명을 생각하는 지식인들

33) 이북명, 『인테리』,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서, 1995, 418면.

의 추상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지식인이 주동인물인 이북명의 소설들은 모두 노동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장지대를 방문한 지식인이 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삼는다. 이 지식인들의 이력과 공장지대에 대한 감흥의 상당부분은 이북명이 함흥 행을 결심한 이유와 함흥에서 일자리를 찾던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과 유사하다.³⁴⁾ 특히 『어둠에서 주는 〈스케치〉』에서 ‘나’가 H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와 이북명이 함흥으로 가게 된 원인을 회고하는 내용은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³⁵⁾ 즉, 이북명 소설의 지식인 인물이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북명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인들에게 공장지대가 왜 매력적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도 공장지대에서 자본가에 저항적인 의식을 가지고 노동자의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그려지지, 노동자들의 현실에 무지한 골방 지식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계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시선은 지식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지대에서 혁명을 기획하는 이북명의 기획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준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북명이 지식인들이 왜 기계에 매혹되며, 이러한 매혹이 그들과 노동계급 사이에 어떤 차이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함흥 공단 이주를 다룬 소설은 언제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노동하기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기계와 만들어가는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이북명의 회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북명은 “확고한 사상의식을 소유하기에는 어느 모로 보든지 아직 어렸던”³⁶⁾ 시기에 공장에 들어갔다고 회고한다. 그는 공장이 왜 자본

34) 이 부분에 관한 회고는 이북명, 『공장은 나의 작가 수업의 대학이었다』, 남원진 편, 『이북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440-446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이북명, 『어둠에서 주는 〈스케치〉』,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선집』 3, 보고사, 1995, 330-332면.

주의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인지, 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하는 주요한 공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선질소비료공장에 취직한 것이다.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의 학력은 물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계급 의식은 키워나갔을지언정 왜 공장이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이 되는지, 카프 작가들의 소설들이 왜 독자들에게 공장으로 가라고 선동하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북명의 분명치 못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한 목적의식의 부재는 그의 노동현장 재현이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기계문명의 발전과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소설 속에서 심도 있게 재현하지 못했던 원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장에서 노동한 경험은 그의 소설이 식민지시기 그 어느 노동계급 문학보다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를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적 지향을 가진 문학가들이 기계를 인식한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다.

이북명의 소설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식인이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노동자가 초점인물인 소설들에서도 기계는 항상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악’이 아니라 때때로 산업과 문명발전의 상징이기도 한다. 이처럼 기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이북명 소설의 시각은 그가 해방 이후에 창작한 소설을 분석하면서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각에서 시각으로: 기계를 통제하는 힘을 가진 노동자

이북명의 해방 이후 소설, 특히 북한에서 창작한 소설에서도 기계는 그

36) 이북명, 『공장은 나의 작가 수업의 대학이었다』, 남원진 편, 『이북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441면.

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업도시이자 새로운 경제발전과 기술발전 계획을 위한 도시로서의 흥남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고,³⁷⁾ 이북명 역시 흥남을 그린 그의 소설에서 당시 북한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면서 그가 식민지시기부터 주요 소재로 삼던 공장, 그 중에서도 비료공장을 계속 재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그의 소설에서 노동자들과 기계 사이의 불화가 사라지고, 기계가 청각적 이미지보다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는 식민지시기에 발표했던 『초진』을 수정하여 『질소비료공장』(1958)이라는 제목으로 재발표한다. 이 판본의 서사는 『초진』과 유사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이 수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 판본은 기계가 노동자들을 해치는 원인으로 보일 만한 부분을 수정하여,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를 누가 기계를 소유하고 어떻게 기계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재현한다.

이 악취는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문제는 회사 측이 여기 대해서 돌리는 관심 여부에 달려 있었다.

만일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가 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다소나마 유의하고 있다면 이미 악취는 훨씬 제거되었을 것이고 팔을 통제로 잘라먹는 기계에 안전장치를 하였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단 유안 직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유황 철광을 태워 유산을 제조하는 유산 직장에서는 배소로가 내뿜는 아황산 가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30분 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대로 노동자들은 가스에 중독되어 노 앞에서 철썩철썩 나가쓰러지는 형편이었다.³⁸⁾

37) 위영금, 『북한도시, 함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5-149면.

38) 이북명, 『질소비료공장』, 남원진 편, 『이북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21면.

위 인용문은 『초진』과 『조선일보』에 발표된 『질소비료공장』 모두에 실려 있지 않은 부분이다. 북한의 『질소비료공장』 역시 서술 방식은 다르지만, 『초진』처럼 소설의 서두를 노동자들을 압도하는 기계의 위용과 노동자들의 신체를 해치는 기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초진』과는 달리 위 인용문처럼 기계와 노동자가 불화하는 원인을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를 설비한 것에서 찾는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기계 그 자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 인용문은 이 소설에서 여러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질병을 얻게 되지만,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배려하면서 기계를 다루지 않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³⁹⁾ 사측은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급료와 노동환경, 그리고 복지를 제공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적대를 조장하며, 노동자들을 이윤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 이러한 사측의 정책들은 결국 노동자들이 공정과정에서 건강을 해치고 부상을 입는 사건들을 야기한다.⁴⁰⁾

『질소비료공장』은 『초진』과 비교해보았을 때 앞서 분석한 대로 기계 자체보다 기계 작동을 위한 환경이 노동자들을 해치는 원인으로 부각시킨다는 것 외에도 노동자들의 민족성에 따라 공장이라는 환경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임금의 측면에서도 공공연하게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초진』에서 단 한번도 ‘일본인’, ‘조선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질소비료공장’이라는 딴 세상에 오기는 왔으나 아직 그 생활에 생소한 조선인 노동자들-그들 중에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안목이 모

39) 이복명, 위의 책, 59면.

40) 이복명, 위의 책, 59-60면.

자라게 넓디넓은 전원에서 맑은 공기와 물만은 마음껏 마시면서 자라난 빈농 출신이 많았다.의 일반적인 느낌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공장 생활에 정을 붙이기란 오랜 시간을 두고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⁴¹⁾

만일 바다 건너 본국에서 보통 노동자 한 명을 데려온다면 그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노임을 배로 올려주는 동시에 재선수당(在鮮手當)까지 붙이게 된다. 그뿐인가? 가족을 합친 전근비가 막대하게 지출되고 사택을 제공해야 했다. 잇속이 밝은 회사 측의 계산에 의하면 보통 일본인 노동자 한 명을 불러오는 비용이면 조선인을 열 명도 더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필요한 수의 일본인 노동자 외에는 전부 조선 사람으로 채우기로 하였던 것이다.⁴²⁾

두 인용문은 당시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서로 다른 처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초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다른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민족별로 공장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공장은 꼭 필요한 노동력, 즉 숙련 노동자와 경력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선인들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유사 업무를 경험했거나 공장의 분위기에 익숙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들은 농촌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장 분위기와 업무에 적응하는 속도도 조선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민족별 임금 격차이다. 다양한 수당을 합치면 같은 직급의 조선인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열 배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 소설의 기술은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민족에 따라 임금은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기술이 있는 일본인들이 아닌 비숙련 노동자들도 할 수 있는 일

41) 이복명, 위의 책, 20면.

42) 이복명, 위의 책, 60면.

이라면 조선인들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초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민족차별이 북한에서 발표한 『질소비료공장』에서는 상당히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소비료공장』은 북한에서 또 한 번의 개작을 거쳐 식민지시기의 두 판본과는 다르게 기계와 인간 사이의 적대는 기계가 원인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고용주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그는 공장 내 민족차별을 강조하고, 식민지시기 판본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공장의 운영 주체 “노구치” 재벌⁴³⁾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킨다. 이 소설에서 노동자가 기계 공정 와중에 부상을 입는 이유는 사용자가 적절한 안전 설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현상이다. 결국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계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기계는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북명의 소설에서 공장이 일본 제국 재벌이 아닌 민족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전유되었을 때 공장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는지 『노동일가』(19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승기는 이 소설을 분석하면서, 기계-도구 연관에 완전히 녹아든 김진구를 “협동적 신체성”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분석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진구는 가정-공장-국가를 일체로 보는 북한의 기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이 일체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제일 효율적으로 양질의 공정을 수행하는 최적의 방법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⁴⁴⁾ 김진구는 『질소비료공장』의 노동자들과 달리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이 목표를 위해 공장 설비와 공정을 최적화하는 환경 안에서 기계와 서로 협력한다.

이 소설이 마치 기계와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재현하는 듯 보이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이북명이 북한의 체제를 신뢰하며 이들의 산업정

43) 이북명, 위의 책, 59면.

44) 차승기, 『기계, 노동, 신체: 노동소설의 해방전/후와 신체성의 전환』, 『사이間SAI』 25, 국제한 국문학문화학회, 2018, 142-143면.

책인 인민경제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한 소설 『노동일가』는 역시 식민지시기 그의 소설의 주요 무대였던 홍남을 배경으로 질소공장에서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선반공들을 그린다. 이 노동자들은 기계를 사용하여 노동하지만 식민지시기와는 달리 격무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헌신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고양된 의식과 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김진구는 건국실에서 웃던 웃음을 채 거두지 못한 채 기름 냄마로 선반기의 바이트 대를 닦고 있다.

그저 전장금사 그대로의 명랑한 얼굴 표정이다.

김진구는 매 같은 눈으로 바이트 끝과 피스톤 롯트의 깎은 자리를 점검하고 공구를 갖추어놓고 다시 한 번 청사진한 도면을 세심히 들여다보고야 선반기를 돌려 조심조심히 깎기 시작한다. 김진구는 지금 그가 깎고 있는 피스톤 롯트에다가 자기의 기술적 역량을 깎그리 바치고 있다.

홍남지구 인민공장에 부과된 47년도 생산 책임량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달성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유안비료硫酸肥料만은 눈에다 쌍심지를 달아가지고라도 책임량은 완수해야 한다고 김진구는 생각한다.⁴⁵⁾

김진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 식민지시기에 일본인 기술자들의 어깨너머로 선반기술을 배운 노동자이고, 해방 이후에도 함흥의 공장지대에서 공원으로 일한다. 그러나 그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대신 성심을 다해 그에게 맡겨진 할당량 이상을 성취해내고자 한다.⁴⁶⁾ 실상 공장에 부과된 생산 책임량을 달성하기

45) 이복명, 『노동일가』, 앞의 책, 236면.

46) 김진구가 정교한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력 향상을 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어떻게든 기계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모습은 당시 함흥 중심으로 경쟁방식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려던 북한의 정책방향을 재현한

위한 총 책임자는 김진구가 아니지만, 그는 책임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계부품 개발에 열중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가 기계 개발에 열중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각각의 기계 부품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가 이를 어떻게 개량하고 있는지 묘사한다. 이 소설은 그가 “부강한 민주주의 조선”⁴⁷⁾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결, 민주, 생산, 학습”이라는 공장의 실천 강령에 누구보다 열중하기 때문에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본다. 즉, 그는 국가 발전을 자신의 발전과 동일시한다. 그는 그 자신을 오롯이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며, 그것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중하는 노동자는 식민지시기 이북명의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 한 예로 『기초공사장』(1932)을 보면, 이 소설에도 기계를 조립하고 이것의 운영에 관여하는 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기계 조립과 개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노동은 「노동일가」의 노동과는 달리 기계를 어떻게 개조해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시각적 이미지로 이들의 공정을 묘사하는 부분도 이들이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대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운전 날이 가까워졌다.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 목도질하는 소리, 도루코소리, 유산가마에서 장작이 튀는 소리, 초석(硝石)을 쏟아내는 소리, 분쇄기에서 초적을 깨는 소리 …… 직장은 버적거린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 모양으로 -

건설기에 흔히 있는 일로 직공들은 죽도록 힘들여 놓은 몇 톤씩 되는 기계를 다시 뜯어 고쳐놓기도 하고 단단히 낫트(압나사 못)를 조인 ‘프란지’(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쇠)를 뜯어서 모양을 달리 꾸부려서 맞

것이기도 하다. (위영급, 앞의 글, 2018, 157면.)

47) 이북명, 앞의 책, 240면.

추기도 하였다.⁴⁸⁾

위 인용문에서 ‘소리’들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수행하는 공정을 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북명은 이들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리를 통해 대체적으로 스케치만 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개별성은 드러나지 않고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들의 성격만 전달된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공장의 생산력 발전 혹은 공정의 개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특히 “직공들은 죽도록 힘들여 놓은 몇 톤씩 되는 기계를 다시 뜯어 고쳐놓기도 하고”와 같은 표현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보람차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고통스럽고 체력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의 공정은 일본인 관리자의 지시를 따를 뿐, 『노동일가』와는 달리 그들이 스스로 기계를 조립하거나 개량할 수 없다. 이 소설과 비교해볼 때, 『노동일가』는 노동자들이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노동에 헌신하고, 노동 자체가 그들의 자아실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국가의 부강을 노동자들의 자존감 상승과 동일시한다.

이북명의 소설에서 기계가 청각적 이미지 대신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각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에 비해 그 대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 쉽지 않다. 특히 기계의 작동 원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 부품이 핵심이므로, 기계의 소리만으로는 기계가 가진 특성을 재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각적 이미지로 기계를 재현한다는 것은 소설 안에서 기계가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식민지시기 소설에서 기계는 구체적인 기능을 가진 대상이라기보다, 노동자들에게는 자

48) 이북명, 『기초공사장』,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382-383면.

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이고, 지식인들에게는 사회주의적 미래의 비전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다. 한편, 시각적 이미지는 기계의 구체적인 기능과, 기계의 작동 원리를 재현하기에 더 적절하다. 그러나 식민지시기에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계를 재현하기에는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중등교육까지 받은 이복명 역시도 기계의 작동 원리, 부품들, 그리고 기계작동방법 등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복명만이 아니라 식민지시기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193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비숙련노동자들이었고,⁴⁹⁾ 당시 중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식민주의 교육이 제공하는 질 낮은 과학교육으로는 기계의 원리를 자세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했다.⁵⁰⁾ 이러한 식민지적 상황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민족차별로부터 벗어나 ‘조선인’들도 기계를 자세히 관찰하거나 개량할 수 있고, 체계화된 과학교육과 기술자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이고 지역적 배경이 이복명의 소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계가 재현될 수 있었던 물질적 토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체제가 식민지시기와 달리 인민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될 만 하다는 것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창작한 이복명의 소설들에서 기계는 더 이상 노동자들을 해

49) Soon-won Park, "Colonial Industrial Growth and the Emergence of the Korean Working Class",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145-153.

50)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업성장, 그리고 이에 걸맞지 않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과학교육 및 과학 담론의 수준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과학운동이 일어났으나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과학의 객관성을 신뢰한 참여 지식인들에 의해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에 흡수되었다. (편집부, 『과학기술 및 발명운동의 근대적 배경: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26(4), 한국발명진흥회, 2001, 94-110면) 이와 관련하여 임종태가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 동 잡지에 연재한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역시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치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 발전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기여할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그렇다면 이북명의 소설에서 북한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순 없이 사회에 잘 조화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가? 식민지시기의 그의 소설에서 나타났던 양가적 속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가? 북한에서 창작된 이북명의 소설에서 인민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고, 이 집단성은 개인이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성장하기에 필수적인 자질이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개인들은 집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가진 자율적인 주체이다. 『노동일가』의 김진구만 해도 “흙을 파먹는 한이 있더라도 수돌이를 김일성대학에 보내고야 말겠다”⁵¹⁾라는 꿈이 있다. 그리고 이 꿈은 국가의 변영과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은 세속적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진구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에서 국가의 목적의식 아래 의식화된 인물들에게서까지 나타나는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국가의 목적과 완전히 동일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지금은 이 개인들이 국가의 목적에 귀속된 기계와 같등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들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자신의 성장과 합치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5. 결론

이 논문은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소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북명 소설은 식민지시기 프롤레타리아 소설들 중에서도 드물게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를 그렸다. 그의 소설은 ‘기계소리’를 자주 재현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자들과 기계의 적대

51) 이북명, 앞의 책, 247면.

적인 관계를 재현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처럼 재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이복명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계의 양가적인 성격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서 기계와 노동자 관계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복명의 초기 소설은 주로 함흥의 질소비료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주동인물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기계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사망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계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복명이 1930년대 중반에 창작한 지식인들이 주동인물인 소설들에서 공장지대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지식인들에게 기계소리는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설레고 희망찬 소리로 들린다. 이복명이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이 기계소리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재현한 이유는 전자는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후자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공장지대를 배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주동인물인 소설에서도 이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지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의 회고를 참고해볼 때, 이는 이복명이 충분한 마르크스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그의 식민지시기 소설들의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의 특성은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들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은 식민지시기와는 달리 청각적 이미지보다 시각적 이미지로 기계를 재현한다. 이로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식민지시기와는 달리 기계에 의해 착취당하지만은 않고 이를 통제하고 나아가 계발할 지위에 있을 정도로 상황이 변했음을 제시한다. 식민지시기의 소설과 북한에서의 소설을 비교해볼 때, 이복명은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는 기계의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에 달려있으며, 노동자들이 기계를 통제하는 주체와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면 공장 노동이 그들의 자아실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복명

은 그의 식민지시기 소설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계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이상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대상으로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상사회가 기계를 전유한다면 노동자와 기계는 서로 일체화되어 사회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제1차 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안승현 엮음,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서, 1995.

안승현 엮음,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서, 1995.

이복명, 남원진 편, 『이복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한설야, 『황혼』, 신원문화사, 2006.

2. 제2차 문헌

1) 단행본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1권(하), 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2.

Minsoo Kang, *Sublime Dreams of Living Machines: The Automaton in the European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Murray Schafe,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1993.

Soon-won Park, "Colonial Industrial Growth and the Emergence of the Korean Working Class",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2) 논문

곽건홍, 『1930년대 초반 조선질소비료공장 노동자조직운동』, 『역사연구』 35(4), 역사학연구소, 1995.

김경일,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동양학』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

김윤정, 『1930년대 초 범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 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신명호·손정현·채영희, 『자동차 경음 기술이 식민지 조선의 도시소음에 미친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7(3),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13.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 2020.
- 위영금, 『북한도시, 함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수일, 『1920~30년대 산업합리화 운동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식』, 『역사와실학』 38, 역사실학회, 2009.
- 차승기, 『기계, 노동, 신체: 노동소설의 해방전/후와 신체성의 전환』, 『사이間SAI』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한국문학연구소, 2015.
-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 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 편집부, 『과학기술 및 발명운동의 근대적 배경: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 운동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26(4), 한국발명진흥회, 2001.

<Abstract>

The Sound between Oppression and Hope
—The Relationship of Humans and Machines in Yi Pukmyŏng’s
Short Stories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in Yi Pukmyŏng’s short stories. The machine sound seems to hear that prospecting hopeful future in his colonial period stories representing a factory complex. However, the labourers look like resisting machines that harm their bodies and worsen their health. On the other hand, socialist intellectuals find hope in achieving their socialist ideal in the machine sound. In his literature, I compare these stories with his other works published in North Korea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His literature in North Korea suggests how the machines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with their visual images. In conclusion, his stories published in the colonial period represent how the machines contribute to imagining the new society with acoustic images, nevertheless colonialism, which prevented the chances to access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Key words: Yi Pukmyŏng, Machine, Labourer, Intellectual, Socialism,
Factory, Science, Technology, Colonialism

투 고 일 : 2020년 1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3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